

뉴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홍주현 (국민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과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의제가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 정보를 검색하였다.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내용분석은 언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뉴스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네트워크 분석은 한미관계 관련 동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이 연구는 언론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의 정당정체성이 한미관계 보도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했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텍스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방미성공을 상대적으로 덜 부각시켰으며, 한미 양국 현안을 주로 다뤘으며 그 주요 정보원은 야당이였다. 반면 대조적으로, 진보 언론은 문대통령의 방미를 강조하고, 방미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주요 정보원은 여당이였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보수 언론은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미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뉴스검색 채널 역할을 하는 유튜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고 동영상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영상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영향력 상위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과 개인 유튜브 채널은 보수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했다.

언론과 유튜브 동영상 분석을 통해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정당정체성에 따라 보도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의 정당정체성에 따라 보도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현상은 언론의 주요 임무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 시각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언론이 정치적 양극화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을 보도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목 차

- I. 서론
- II. 언론의 한미관계 보도와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
- III. 분석 시기, 분석 대상 매체 및 분석 방법
- IV. 한미정상회담 뉴스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 분석 결과
- V. 결론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이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한 점에 주목해 언론매체 외에 뉴스 검색 기능이 강한 유튜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해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함.

I. 서론

-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이슈가 북한에서 나오거나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한미관계를 논의할 때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북한과의 관계 설정,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차이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 손영준, 홍주현(2018)은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4개 매체가 한반도 핵 위기를 어떻게 프레임 하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밝힘. 진보 신문은 핵위기의 원인을 북한의 자위용 핵 능력 완성 의지와 미국의 핵 억제 정책의 충돌에 있다고 본 반면, 보수 신문은 비핵화를 꾀 북한이 핵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함. 북핵 문제의 해법, 주한미군의 역할, 북미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
- ◆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중 대북 인권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태도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음.
- ◆ 언론학 분야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치적 성향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함.
- ◆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이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한 점에 주목해 언론매체 외에 뉴스 검색 기능이 강한 유튜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해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함.
- ◆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내용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함. 내용분석은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뉴스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많이 언급된 것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봄. 내용분석은 언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의미연결망 분석은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임. 네트워크 분석은 한미관계 관련 동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채택함.
- ◆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이 연구는 언론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함.

II. 언론의 한미관계 보도와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

- ◆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은 미디어가 사회의 의제를 결정한다고 설명함.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을 독자들이 의제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 확산과정으로 바꿈.
- ◆ 길라디, 게슬러, 쿠블리와 뮐러(Gilardi, Gessler, Kubli & Müller, 2021)는 정치적 의제 설정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전통적인 미디어의 게이트키퍼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뉴스생산자가 의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함. 이들은 전통적 미디어 의제, 정당의 소셜미디어 의제,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의제 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 의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환경문제를 다룬 소셜미디어 의제가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하는데 소셜미디어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사회의 의제가 형성되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 정보의 확산 효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함(Feezell, 2018).
- ◆ 피첼(Feezell, 2018)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정보에 노출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공공 의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규명함.
 -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류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습득한 이용자들은 정치 정보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기존의 매스 미디어의 전통적인 의제 설정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음.
- ◆ 그렇다면,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언론이 사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언론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음. 매일 뉴스를 발행해야 하는데, 언론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뉴스 생산 ‘관행’임.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사회의 의제가 형성되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 정보의 확산 효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언론이 사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게이트 키핑은 언론의 대표적인 관행 중 하나인데, 언론사의 뉴스가치를 기준으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요소를 배제할지 결정함. 이 과정에서 현실(reality)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일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요소는 배제하면서 언론마다 현실을 다르게 구성하게 됨(Shoemaker & Reese, 1996).
 - 언론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은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줌.
 - 언론이 특정 요소를 선택할 때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자 개인적 차원의 교육수준, 종교, 성별, 인종에서부터, 미디어 관행 수준에서 뉴스가치, 게이트 키핑, 출입처 제도, 조직 내적 차원에서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성향, 조직 문화, 조직 외적 차원에서 수용자나 광고주의 압력,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영향,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성격,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여러 요인 중 이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함.
- ◆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함
 - 한국의 언론매체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프레임 하는가?
 -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련 이슈를 보도할 때 의제, 논조에 차이가 있는가?
 -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 관련 정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소셜미디어에서 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 관련 의제, 논조에 차이가 있는가?

III. 분석 시기, 분석 대상 매체 및 분석 방법

언론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분석 대상으로 함. 한미정상회담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한미관계의 현안(예를 들면,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미사일 발사, 북한인권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기에 이 연구는 한미 양국에 집중된 이슈를 선택함.

- ◆ 언론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분석 대상으로 함. 한미정상회담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한미관계의 현안(예를 들면,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미사일 발사, 북한인권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기에 이 연구는 한미 양국에 집중된 이슈를 선택함.
- ◆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제, 논조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경향신문을 택함.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 39건, 경향신문 30건 등 총 69건의 기사가 검색됨.
- ◆ 자료수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검색어는 한미정상회담임.
- ◆ 유튜브 비디오는 노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했으며, 총 397개의 비디오가 수집됨.

〈표1〉 분석 대상 매체의 종류 및 기사(비디오) 건수.

매체 종류	매체 명	기사(비디오) 건수
신문	조선일보	39
	경향신문	30
유튜브	유튜브 비디오	397

- ◆ 이 연구는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 분석을 함.
 -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의 관계 분석을 통해 기사에서 강조한 단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내용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내용분석이 분석 목적을 정하고 출현 빈도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의미연결망 분석은 분석 대상 텍스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음.
 - 텍스트 분석은 질적인 분석 방법으로 기사에서 사용한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에서 언급한 단어의 의미를 찾고, 문맥을 이해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분석방법임.
 - 〈표 2〉는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와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줌. 조선일보는 274개의 단어가 1,724번의 연결을 나타냄. 경향신문은 175개의 단어가 866개의 연결을 나타내 조선일보가 경향신문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헤드라인에서 언급함 것으로 보임.
 - 유튜브 비디오는 ‘한미정상회담’을 검색어로 해서 379개가 수집됐고, 단일연결 2,411, 중복연결 260,284로 매우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언론 보도와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 분석을 함.

〈표2〉 네트워크 속성

네트워크 종류	매체 명	Overall Metrics	값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네트워크	조선	노드(Vertices)	274
		단일 연결(Unique Edges)	1,724
		전체 연결(Total Edges)	1,724
	경향	노드(Vertices)	175
		단일 연결(Unique Edges)	866
		전체 연결(Total Edges)	866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		노드(Vertices)	397
		단일 연결(Unique Edges)	2,411
		중복 연결(Edges with Duplicates)	260,284
		전체 연결(Total Edges)	262,295

- ◆ 네트워크 분석에서 영향력 있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 간의 중심성 값을 측정함. 중심성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알아봄.
 - 연결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다른 노드의 연결 수를 나타냄.
 -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된 노드 간 거리의 합을 평균 낸 것임. 매개중심성이 크면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을 알거나 많은 단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네트워크 분석에서 영향력 있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 간의 중심성 값을 측정함. 중심성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알아봄.

IV. 한미정상회담 뉴스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 분석 결과

한미정상회담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고, 기사 본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함.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이슈를 알아보고,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밝히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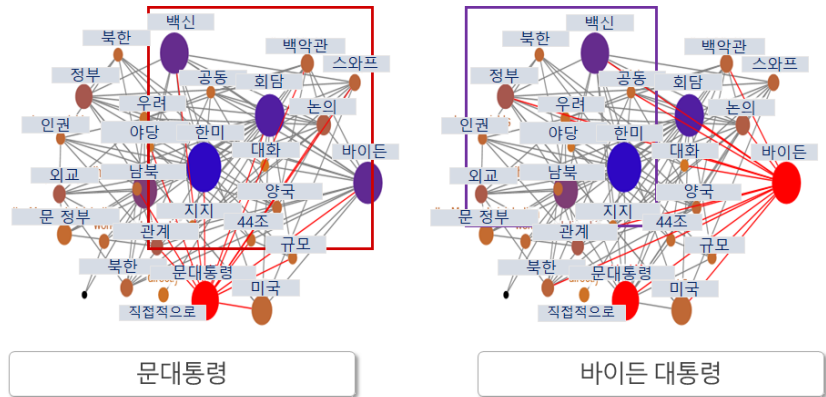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음. 조선일보는 대북 문제, 북한 인권, 백신 스와프 등 양국 현안을 주로 다룸.

- ◆ 한미정상회담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고, 기사 본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함.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이슈를 알아보고,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밝히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음. 조선일보는 대북 문제, 북한 인권, 백신 스와프 등 양국 현안을 주로 다룸.
 - 헤드라인에서 정상회담 당사국인 ‘한미’가 연결성 96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매개 중심성은 7814.078로 가장 커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핵심 단어를 알 수 있음.
 -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제외하면 양국간 이슈로 조선일보는 백신 관련 협의에 주목함(백신: 연결성 69, 매개중심성 5283.358, 스와프: 연결성 27, 매개중심성 733.966).
 -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된 단어로 44조, 환상, 직접적으로, 우려, 인권이 있음. 문정부의 44조 지원을 ‘44조원짜리 크랩 케이크’로 표현해 방미 성과를 평가절하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중에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미국이 양국 모두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삼성, SK, LG에 직접 연락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봄.

<표3> 조선일보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단어	연결성	매개중심성	단어	연결성	매개중심성
한미	96	7814.078	백악관	28	967.719
정상	79	5631.731	외교	35	897.193
바이든	70	5532.306	북한	27	887.023
백신	69	5283.358	관계	35	871.835
문대통령	65	4820.667	스와프	27	733.966
한국	50	3760.553	직접적으로	18	556.446
미국	25	2677.551	양국	24	462.518
정부	37	1814.877	우려	24	449.714
문 정부	22	1290.000	북한	21	435.914
논의	33	1221.840	인권	26	435.914

〈그림 2〉 문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일보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미의 연결중심성이 103으로 가장 컸고, 매개 중심성도 7770.9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은 많지 않음.

- ◆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미의 연결중심성이 103으로 가장 컸고, 매개 중심성도 7770.9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은 많지 않음. 방미에 주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 스케줄을 자세하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워싱턴, 도착, 스케줄, 방미, 알링턴 국립묘지 등 주요 방문지를 언급함.
 - 경향신문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백신, 오찬이며, 방미 성과를 동반자 관계, 결혼 반지 등의 단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경향신문에 주요 행위자는 민주당(여당)이며, 협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협력을 강조함.
 - 양국관계는 협력으로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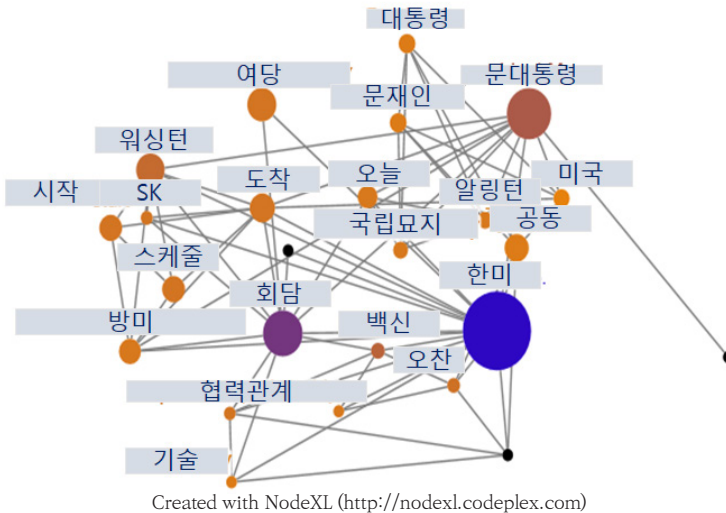
〈표4〉 경향신문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단어	연결성	매개중심성	단어	연결성	매개중심성
한미	103	7700.920	오늘	13	480.952
문대통령	38	3134.557	문재인	12	292.764
회담	66	2457.975	대통령	12	292.764
여당	16	1240.000	미국	7	250.602
워싱턴	24	1188.358	알링턴	13	181.860
도착	18	889.956	국립묘지	13	181.860
공동	12	798.481	백신	29	
스케줄	17	688.500	오찬	19	92.583
시작	17	688.500	마스크	16	53.550
방미	13	633.500	협력	18	39.167

- ◆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한미’의 매개 중심성이 가장 커 양국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을 알 수 있음. 민주당이 주요 행위자로 방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주로 인용 보도함.
 - 그래프에서 보라색일수록 연결 중심성이 큰 것을 의미하고, 노드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냄. 노드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단어 간 연결을 보면, 한미-정상, 한미-민주당, 문대통령-워싱턴, 문대통령-도착으로 연결돼 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주목하고, 문대통령의 일정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밖에 문대통령-워싱턴-도착, 문대통령-알링턴-국립묘지, 문대통령-워싱턴-일정, 문대통령-도착-스케줄로 연결돼 방미 일정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남.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한미의 매개 중심성이 가장 커 양국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을 알 수 있음. 민주당이 주요 행위자로 방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주로 인용 보도함.

<그림 3> 경향신문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 ◆ 다음으로 기사 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관련 의제와 논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의제를 비교해 보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주목해 '미국 우선주의' 프레임에 강조함. 또한, 미국의 최우선 대북외교정책이 북한의 인권임을 강조함. 정상 회담 전에 대북 전단에 대한 반응도 언급함.
 - 정상회담의 성과를 문 정부의 나르시즘이라고 비판했고, 정상 간 오찬도 44조원의 지원과 맞바꾼 것으로 평가절하함.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문정부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반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함. 양국 관계는 협력, 동맹으로 기술함. 양국 간 백신 동맹을 강조함. 여당의 반응을 최대 성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직접 인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함.
 - 다만 정의당이 북핵문제에 대해 계획이 없고 백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비판을 보도함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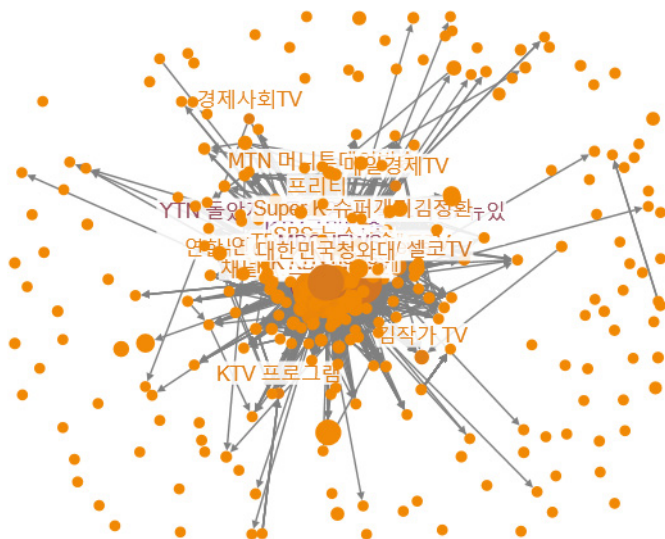
기사 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관련 의제와 논조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 문정부의 방미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문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됨. 보수 성향의 신문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보도하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함.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함.

- ◆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 문정부의 방미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문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됨. 보수 성향의 신문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보도하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함.
- ◆ 반면, 보수 성향의 신문은 문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함.
 - 환상, 나르시즘, 우려 등의 표현으로 비판 프레임이 형성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문정부의 대북 정책 시각차이를 부각함.
 - 44조원의 지원 덕분에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해석함으로써 정상회담성과를 과소평가함.
- ◆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함. 한미정상회담을 검색어로 해서 검색된 397개의 동영상 연결 관계는 <그림 4>와 같음.
 -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냄. 매개 중심성 값이 1,000이상인 경우에만 저자(author)를 표시함.
 - 네트워크의 중앙에 다른 비디오 채널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채널들이 위치했고, 네트워크 주변에 연결이 없는 비디오가 흩어져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음. 이 네트워크는 노드 간 방향성이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A → B는 A동영상을 시청한 후 B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보여줌.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굵은 선으로 표시됨.
 - 네트워크 중앙에 청와대 채널, KTV 국민방송과 같은 정부 채널과, YTN, 채널 A, MBC NEWS 같은 언론사 채널, 김작가 TV, 슈퍼개미김정환 같은 개인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4> 한미정상회담 관련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 <표 5>는 영향력 상위 10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줌. 정부지원 채널인 KTV 국민방송이 문대통령의 추모의 벽 착공식 방문을 보도한 비디오의 조회 수가 132만여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위 10개의 동영상 중 KTV 국민방송 비디오가 4개를 차지했고, 이밖에 MBCNEWS와 YTN news가 각각 3개씩 차지함.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문대통령의 방문 일정 보도, 한미정상회담 성과, 한미정상회담 뒷이야기, 일본의 회담과 비교 등 긍정적인 내용과 평가가 주를 이룸.
- 상위 10 개의 동영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문대통령의 방미 관련 부정적인 내용은 보수 성향의 종편 채널 동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음.

<표5> 상위 10개 유튜브 비디오 특성

저자 (Author)	제목(title)	조회 수	내향 연결성	외향 연결성	매개 중심성
MBC NEWS	[정참시] "문 대통령 너무 고맙다"...야당 의원이 극찬한 이유는? (2021.05.25/뉴스데스크/MBC)	812,221	15	170	6511.626
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이 보여준 진짜 예우는 행사가 끝난 후에?! 미국 공식방문 일정 중 참석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1,320,740	125	60	2788.644
MBC NEWS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질의응답 (2021.05.22/뉴스투데이/MBC)	382,310	5	150	3052.318
YTN news	[돌발영상] 흥미로운 질문 / YTN	1,022,085	141	13	2959.843
KTV 국민방송	참모진도 말린(?) 한미 정상의 6시간 릴레이 소통! 만나자마자 카메라 등지고 비밀을 만들고, 동질감을 확인하며 이어간 한미 단독회담,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의 결말은?!	960,762	14	170	2741.208
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해리스 부통령이 웃었던 까닭!?!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진 미 해리스 부통령 접견 폴스토리	852,051	29	146	2513.296
MBC Radio	[정치사썰] 한미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는 미사일지침 종료? 그럼 이제 윤석열은 미사일 공부하러?	200,870	40	110	2353.218
YTN news	[뉴있저] 日 언론 "점심도 졌다"...훈장 수여식 문 대통령 홀대? 사실은 / YTN	453,668	32	138	2323.817
KTV 국민방송	미 하원의장,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특별히 챙겨 온 카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하원지도부와 간담회, 한국계 의원들도 참석한 생생한 현장 분위기!	870,081	16	156	1746.151
YTN news	[속보]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귀국... "최고의 회담"	67,131	47	107	1591.300

◆ 유튜브 저자를 뉴스생산 환경에 따라 언론사 유튜브 채널, 정부 채널, 개인 채널로 구분하고,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뉴스생산 환경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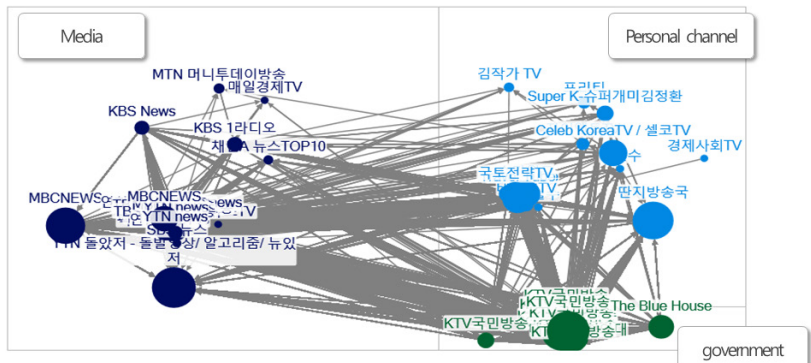
달하는 메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는 매개 중심성 1,000이상인 경우만 표시한 것으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큰 것을 나타냄.
- 미디어 채널 중에서는 MBC NEWS와 YTN 동영상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정부 채널은 KTV 국민방송 비디오가 다수 있고, 청와대 채널도 보임. 개인 채널은 국토전략TV, 따지방송국의 매개 중심성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언론사 채널을 연속해서 시청한 경우가 많음. 혹은 언론사 비디오 채널을 시청한 후 정부 채널을 시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정부 채널의 경우에는 정부 채널을 먼저 시청하고 언론사 채널이나 개인 채널을 시청하는 양상이 나타남. 개인 채널을 먼저 시청하고 언론사 채널이나 정부 채널로 향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검색할 때 알고리즘 기반으로 영향력이 높은 언론사 채널이나 정부 채널을 추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채널별로 전달한 메시지를 보면, 언론사 채널 중에서 보수 언론은 백신 스와프의 남은 과제에 주목하고, 한미정상회담 관련 북한 반응에 집중함. 정부 채널은 미국의 호의적인 반응과 교민 만남, 공동기자회견, 크랩케이크 등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뒷이야기를 전달함. 개인 채널은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초대박, 미국이 성의를 보였다 등으로 극찬했고, 중국의 반응을 전달하기도 함. 개인 채널 중 경제 주식 채널은 한미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를 알려줌. 문대통령 방미에 대부분 호의적인 개인 채널과 달리 정치인 채널인 안철수 채널은 문대통령 방미 성과를 '요란한 빈수레'로 표현해 평가절하함.

영향력 상위 10개 동영상의 경우 친정부 성향의 언론은 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 영향력 상위 10개 동영상의 경우 친정부 성향의 언론은 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보수 성향의 개인 유튜브 동영상도 방미 성과를 평가절하해 한미관계를 바라볼 때 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나 현실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정치적 성향 별 유튜브 네트워크 집단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V. 결론

- ◆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언론에 나타난 한미관계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를 다르게 프레임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권에 따라 미국에 대한 태도에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임.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북핵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남북대화 등 북한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매우 큼.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남.
- ◆ 이 연구는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이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에 주목해 소셜미디어로서 뉴스 검색 기능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이슈가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함께 살펴봄.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성향이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의제설정이나 논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
- ◆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정권의 입장 차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됐고, 언론도 이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접하게 됨으로써 수용자, 독자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 보수 성향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현안에 주목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은 방미 자체에 주목하고, 성과를 두드러지게 강조함.
- ◆ 보수 매체, 진보 매체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나 태도는 나타나지 않음.
- ◆ 유튜브의 영향력 상위 10개의 동영상은 친 정부 성향이거나 진보 성향의 매체인데, 문정부의 방미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함.
- ◆ 분석 대상 언론 매체를 좀 더 늘려 기사 건수가 많았다면 양적으로 의제, 논조를 비교하고 일반화하는데 유용했을 것임. 의미연결망 분석도 헤드라인에 대해서만 실시했는데, 기사의 텍스트에 대해서 시행했다면, 언론이 강조하고자 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 연구는 매스 미디어 중심 의제설정과정이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에 주목해 소셜 미디어로서 뉴스 검색 기능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이슈가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함께 살펴봄.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성향이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의제설정이나 논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정권의 입장 차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됐고, 언론도 이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접하게 됨으로써 수용자, 독자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손영준, 홍주현, 2018,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치, 정보연구 22(3): 175-210.
- Freezell, Jessica, T., 2018. “Agenda Setting through Social Media: The importance of incidental News Exposure and Social Filtering in the Digital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1(2): 482-494. <https://doi.org/10.1177/1065912917744895>.
- Gilardi, Fabrizio, Gessler, Theresa, Kubli, Maël & Müller, Stefan. 2021. Social Media and Political Agenda Setting, *POLITICAL COMMUNICATION* 2021, 1-22. <https://doi.org/10.1080/10584609.2021.1910390>
- Shoemaker, Pamella, J. & Reese, Stepham,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Second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s.

❖ 저자 약력

■ 홍주현

現 국민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연구학자 역임. 관심분야는 소셜미디어 여론, 정보확산, 네트워크 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xploring the Diffusion and Sentiment of Messages on Internet Nationalism in China Via Weibo, A Chinese Social Networking Site”,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루머의 사실성, 파급력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공중의 관계: 사드배치 관련 루머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인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